

신행·포교 중점추진... "내고장이 불국토"

병자년 부산·경남지역 불교계는 그간의 외형적 행사 일변도에서 탈피, 거주민구의 절반 이상이 심정적 불교인이라는 교세에 걸맞는, 내실있고 차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교계는 대체적으로 올해의 사업요령에 있어 △불교자원봉사 체계화 △계층포교 활성화 △제 신행단체 대화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와 '선유마을(회장 법선)' 등은 올해가 '불교청소년의 해'인 점을 주시하고 청소년 자원봉사단 모집과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준비, 실행중에 있다.

인, 장애인, 군장병 등 계층을 세분화해서 불법홍포에 나설 예정이다. 수갈래로 갈라져 신행활동의 고립화, 왜소화를 초래하고 있는 신행단체의 분열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화합이 그 당위로 거론되고 있지만 각 단체들의 이념

부산·경남

자원봉사 협의체구성 체계화

교계는 부산지역에 '자원봉사 연합회'와 같은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협의체가 없어 활동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향후 그와 같은 조직구성도 아울러 모색하고 있다. 약방의 감초처럼 매년 등장하는 '포교 활성화'라는 명제에 있어 부산교계는 포교의 실질화를 위해 계층포교에 전력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포교의 최일선에 있는 스님을 비롯해서 법사, 지도교사들이 함께 협력해 청소년, 직장인, 전문

과 방향성, 기득권 등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개교, 공창, 두승 등 각 사회복지관들의 꾸준한 활동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들 복지관들은 비록 연륜은 짧지만, 실생활에 밀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활동해 왔다. 따라서 드러내지 않으면서 불교를 생활 깊숙이 전파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 불교계가 불기 2540 병자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는 초과일에 즈음한 불교방송의 개국 여부. 여러가지 현안중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광고예산에 송신소 확보뿐이다. 진각회관동의 입주를 목표로 협상을 벌였던 방송국 입주문제는 임대료문제가 타결되지 않아 난관을 겪고 있고 20여억원에 달하는 출연기금모금도 여의한 지역경제사정, 정치사정 등과 의해 부진한 편이다. 이와같은 제반사정으로 인해 개국이 다소 늦어지리라는 의견이 다. 앞날의 불교방송

본사급 이상의 봉사로는 초파일 완공을 앞두고 있는 진각종의 진각회관, 동화사가 신년 사업으로 확정된 성보전시관 및 대비장건립, 사천왕문 복원, 통일대불 마무리 공사 등이 있다. 해인사에서도 유물전시관과 마을주차장 건립시공을 앞두고 있다. 은해사에서는 불교방송 기금마련을 위한 이벤트를 기획 중이다. 기타 한미음선원 대구지원 이전건립, 민방회 만불전 상량식, 관음사·영남불교대학의 분당회관건립 등 단위사찰별 봉사도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대구·경북

대구佛放 초파일개국 '관심사'

에 대한 호응도가 커서 개국에는 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대구광역시 사원주지연합회도 통합 2년째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실무를 맡았던 이세호 사무국장에게 물러나고 새 임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은 하영기 남도서점 대표, 박진수 신도회 사무국장, 김성수 동화사 기획실장장 등이다. 새 진용이 갖추어지면 사원련은 불교회관건립재계, 선봉사관할 원원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 교계 2번째 종립대학인 위덕대의 개교, 관암사의 수보리유치원과 입후사 마하유치원의 개원도 주목된다. 특히 성도절을 맞이해 오는 20일 오후 3시 구미 근로청소년회관에서 구미사연연합회(회장 법봉·도지사 주지) 주관으로 경북 및 구미시 전 사암스님 및 지역불자들이 참여하는 성도절 기념 특별법회가 열린다. 이날부터 성도절까지 각 사암은 연등을 밝히며 부처님이 되심을 기린다. 바야흐로 대구·경북불교계가 큰 기지를 켜고 있다.

지방패트를 병자년 지역불교를 전망한다

한국불교를 대표하고 있는 서울·경기지역 불교계는 금년에도 모든 부문에 걸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은 사찰중심의 단순한 신행활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생활불교'가 시도되고 있다. 포교당, 불교교양대, 신행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강좌의 경우 생활전반에 걸쳐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의 참여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담전화, 자원봉사, 사회복지자원연동 등 불교의 대

사회 부분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경기지역은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면서 불교계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먼저 강화도가 인천광역시 시에 편입되어 강화불교가 활기

서울·경기

생활불교 확산 포교조직 재편

를 펼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움직임으로는 판문대장경 관각지 선원사의 복원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길상면에 상암이 세 사회봉사에 새 전기를 마련한

생활영역권이 하나로 묶여있던 하남과 광주가 각각 시로 승격되면서 이 지역 불교계도 급변은 자체 조직정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수원 불교의 숙원사업인 수원포교당 중창



전국 각 지역에서는 청소년포교에 주력하는 한편 불교유치원 등의 교육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대구 청주불교방송 개국에 이어 전주 춘천도 불교방송 설립을 적극 추진한다. 사진은 청주방송국 조감도.

불교청주방송이 본격적인 개국작업에 착수한다. 8월까지 청사준공을 마무리하고 9월 시험방송을 거쳐 10월 개국할 예정이다. 청주청원불교연합회는 이달 25일 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등 조직개편과 함께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항모색에 나선다. 또 관북교진흥회 관음사는 지역

나 대전불교사연연합회는 이런 심각성을 일깨우고 대전지역 불교홍포와 불자간의 단합을 위한 '시민을 위한 대법회'를 이달말경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전통불교연합회 역시 이달말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 '달리는 전법사'로서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시킬 계획이다. 군북교진흥회와 어머니불교

충청

청주佛放 10월 개국준비 한창

불자들에게 편리한 신행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찰내 270여평 규모의 불교회관 '천불전' 건립에 들어갔다. 또 지난 10월 법당 낙성식을 봉행했던 삼군법당 수국사도 군불자 및 지역인 포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제주도의 불교활동은 다양한 형태의 사업방향 모색보다는 각 신행단체를 모태로 봉사활동을 위주한 사업이 주류를 이룬다. 병자년 새해를 맞아 제주지역의 불교활동 계획 역시 전사회 음악회 성지순례 등 다양한 형태의 불교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산이나 서울 등 신행단체들은 불교청소년의 해를 맞아 여느

제주

한라불교문화 정착하는 해로

열세에 있는 제주의 각 신행단체들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매달 전개한다는 기본 사업계획에는 변화가 없다. 이같은 사업계획은 제주지역에서 봉사활동이 특징적 불교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제주지역내에서 순수불교사 회단체로 명명하고 왕성한 불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불타 제주중앙클럽은 조직내에 기획단을 구성, 포교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불교대사포교회를 비롯 청소년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신행단체들은 불교청소년의 해를 맞아 여느

계획이어서 광주 전남지역 불자들의 신행활동이 유난히 두드러진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은 금산사를 계층 근 본도량으로 사격을 갖춰 옛 가람의 명성을 되찾기로 하는 등 도량봉사, 포교봉사, 지역봉사역원력을 세우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조계종이 지정한 불교청소년의 해를 맞이하여 청소년포교를 위한 대대행사를 계획중에 있어 침체된 지역 불교(교)보리수(초·중) 학생회 활성화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지역불교의 화합을 위해 초

파일에 열릴 전북불교연합회 연합대회를 필두로 일반신도 청년회원 대학생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수련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김제 흥복사 복지관 건립추진, 진안군 불교회관 건립 및 유지원운영, 신용협동조합 개설 및 불교전주방송의 설립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또 장의 절차 '대행사업체인 상락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다채로운 불자들의 활동적인 신행생활을 창출해 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전라

복지시설 확충 생명사상 실천

역점을 둔다는 흐름이다. 또 빈약한 광주·전남지역에 불교유치원과 어린이집, 복지관을 더욱 확충해 나가며 백양마을 등을 비롯한 불유시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광주·전남지역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법회 및 포교활동을 사업연합회 차원에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방송계도 광주불교방송이 제 지리를 잡아나가고 불교TV도 광주지사를 연초에 개설한다는

로 일반신도 청년회원 대학생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수련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김제 흥복사 복지관 건립추진, 진안군 불교회관 건립 및 유지원운영, 신용협동조합 개설 및 불교전주방송의 설립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또 장의 절차 '대행사업체인 상락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다채로운 불자들의 활동적인 신행생활을 창출해 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강원

복지관·유치원 신설포교 새장

교방송유치, 춘천불교회관 개관, 관내 신행단체 연합행사, 각 시·군 소재 불교유치원 신설 등의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어 어느때보다 활발한 불교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활동을 통해 불교 불모지라는 오명을 지워낸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업연합회와 신도단체의 임원개편을 서둘러온 원주 황성지역은 새해부터 거둔다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업연합회와 신도회의 임원개편으로 인한 96년 각종 연합행사가 소축했다고 자체평가를

속초 등 영동지역은 사업연합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6년여 동안 꾸준히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성활동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타 도시보다 경성활동에 있어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영동지역은 경성활동뿐만 아니라 이달중에 제소자의 포교를 위한 강릉교도소 법당이 완공될 예정이어서 제소자 포교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통일 기원대법회, 원각사 영·육아보육시설이 건립되면 지역 불교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믿음과 수행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일타큰스님께서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불보살의 가피!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신국판 / 5,000원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에 일타큰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건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I. 니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II.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III. 영법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IV.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V.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VI. 기도인을 바른 길로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참된 자유와 깨어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는 대자비 법문

범망경보살계

제1~5권 / 신국판 / 각권 320면 내외 / 각권 6,000원

《범망경보살계》는 대한불교 조계종 전체대회상인 일타큰스님께서 수십년 동안 보살계 산법법회에서 강설하신 무애법(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이다. 5부의 대작(大作)으로 보살계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장광설(長廣說)의 대자비 범문이다.

이미 보살계를 받으신 분, 대승불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 본래의 마음자리로 되돌아가 참된 깨달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십시오. 무명의 업장이 권하고 한없는 공덕이 생겨날 것입니다.

불자들의 입문서 - 초발심자경문
세간의 해설서, 드디어 완간!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읽은 책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읽고 넓은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될 것이다.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정》 강설집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정》을 일타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알기 쉽게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줄 것이다. 5,000원

아문비구의 《자경문》 강설집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문비구의 《자경문》을 일타큰님이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해설했다. 불자의 심과 인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신행의 나침반이 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백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5,000원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신국판 / 4,500원

“죽을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큰스님 자신과 가족·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엮은 책 이 책을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범공양문 신국판 /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감로법문 태이프 5개 1세트 / 10,000원

듣는 것 만으로도 깨달음의 세계에 뛰어들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 동산요리 전화: (02) 587-6612·3 팩스: (02) 586-9078